

“북부지역 발전 갑자기 다가올 가능성 높다”

12월2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북부기우회에서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월21일 오전 7시30분 의정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북부기우회에 참석해 “북부지역은 기우회가 좀더 자주 열려야 한다. 4번은 부족하다. 북부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류 부족, 지역은 넓고 구심축이 약하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주

와야겠다. 잘해야겠다.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합쳐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해야겠다. 희망의 땅 가능성의 땅 대한민국을 끌고 갈 땅이다.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미군공여지 부분에 있어서 5천100만평중 4천300만평이 북부지역 많은 구상이 있겠지만 묶였던 곳이 풀리는 곳이 미군기지”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내년 2월 상당히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대안입법 1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단축하게 되면, 두 가지 미군공여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하 1억평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경과 분단이후에 가장 아픈 곳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던 곳이 해방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북부지역은 갑자기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도 미국도 전혀 예측

하지 못했다. 광복도 갑자기 일어났다. 북부지역의 발전기회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도시 100조 투입은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적 재앙이다.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열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돼 가슴이 아프다. 중국의 부상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몽골도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러시아도 중국도, 한반도가 중요한 통로다.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 상황을 타파하고 극복해야. 대륙을 향하는 꿈이 현실이 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서울에서 카드하나로 경기도에서 완전 환승할 인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목표로 협력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등 59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동 소로2-49호선 변경(인도→차도)결정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상대로 존치하기 바랍 등 56건을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천360억원을 5천244억6천244만원으로 61억3천8백만원을 감액했으며,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 20억원을 감액 했다.

김문수 지사는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사업 등 22건의 사업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제4차 분회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구성이후 총6회 56일의 회기일수로 7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김문수 지사는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사업 등 22건의 사업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제4차 분회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구성이후 총6회 56일의 회기일수로 7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내년 예산 5천244억6천2백만원 확정

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정부시의회는 11월24일부터 12월20일까지 27일간에 걸쳐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123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채택했고, 2007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의정부시 시제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의정부시

의회 의원 공무원외행규칙 전부개정안 등 1건의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시 행정 전반에 걸쳐 펼쳐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123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채택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조례안 등 안건이 최소한 7일 이전에 의원에게 전달되어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양 등 8건

을, 기획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 개발계획, 장기적 로드맵 계획을 기획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등 59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동 소로2-49호선 변경(인도→차도)결정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상대로 존치하기 바랍 등 56건을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천360억원을 5천244억6천244만원으로 61억3천8백만원을 감액했으며,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 20억원을 감액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12월22일 의정부시 호원2동 사무소 개청식



의정부시 호원2동 사무소 개청식이 12월22일 김문수 의정부시장과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정부시는 분동이후 상가 건물을 임대 사용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던 호원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22일 김문수 의정부시장, 도·시의원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식전행사로 가재울놀이패의 선반, 판굿 등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기념식에 이어 현관 제막식과 테이프커팅, 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관람을 했다.

이어서 식후행사로 5인조 관현악 및 고구려 밴드 공연이 펼쳐졌으며, 해와달, 박아람 등 초청가수 공연도 열렸다.

의정부시 한술길 3(호원동 319-2)에 들어선 호원2동사무소는 작년 11월 착공해 1년여만에 준공 되었으며, 2천298㎡ 부지에 연면적 1천656㎡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주민전산실로 사용되며, 2

층에는 동대분부가 위치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로써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AV강상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원2동사무소는 2003년 분동 이후 상가 건물을 임대 사용해 주민들의 동방문이 용이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문제 등이 해소되었으며, 평화로와 회룡역이 인접해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임해명 호원2동장은 “이번 청사 신축 이전으로 그동안 협소한 동청사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운영하는 등 우리가 주인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호원2동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로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실현

제7회 회룡시니어 예술제 전시회 개최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제7회 회룡시니어 예술제 전시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실시했다.

11월8일 제7회 회룡시니어 예술제 경연대회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서예, 동양화, 디지털카메라 사진 등 100여점 작품을 어르신들을 위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갖는 뜻깊은 행사다.

12월27일 오전10시 김문수 의정부시장, 도·시의원, 노인회장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연말을 맞아 그동안 사회교육 강화를 통해 연마한 어르신들의 실력을 가늠 및 지역사회에 선 보임으로써 어르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해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진작하고

자 실시한 전시회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 회원은 2천895명이며, 서예, 고전무용, 한문교실, 차명댄스, 킷, 뜨개, 왈츠, 장구, 일본어, 댄스체조 등 사회교육사업과 노인전산교육, 실버인력뱅크 운영 등 위탁사업, 물리치료 등 기능회복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일자리마련, 실버인력뱅크운영, 노인전산교육, 노인교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문수 의정부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서예, 동양화, 디지털카메라 사진작품 등 100여점의 작품을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제7회 회룡시니어 예술제 전시회를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개최해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에 이바지했다.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



의정부시 잠암동 소재 깨먹토종구이 강희국 사장이 관내 경로당 3곳과 잠암종합사회복지관 가족들에게 사랑의 떡을 전달해 훈훈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깨먹토종구이 강희국 사장

의정부시 잠암동에 소재한 깨먹토종구이의 강희국 사장이 동관내 경로당 3개소와 잠암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공부방과 바다교실 회원(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사랑의 떡을 지난 12월22일 전달했다.

강 사장은 평소에도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돕기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떡, 비빔떡, 절편, 인절미 등을 전달해 주어 받는 모든 분들이 즐거워했다.

한편, 강희국 사장은 평소에도 소리 없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으나 이번에도 동사무소에 기탁해 복지관 등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강 사장은 이 떡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함께 경로당에는 직접 전달하겠다고 바쁘게 발걸음을 돌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35명 졸업



의정부제일시장 제1회 상인대학 졸업식이 12월 22일 상인교육장에서 김문수 의정부시장과 졸업생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정부시는 대형유통업체 증가와 소비자 구매성향 변화 등 유통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상인대학 졸업식이 12월22일 의정부제일시장 상인교육장에서 김문수 의정부시장 및 졸업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졸업식은 명예학장인 김문수 의정부시장의 졸업장 수여와 우수자 표창, 축사, 격려사, 답사, 기념촬영 등으로 실시됐으며, 우수자로는 변화속씨의 3명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제1기 상인대학 졸업생들은 지난 달 6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제일시장에 상인교육관에서 유통환경 변화, 의식혁신, 친절서비스, 상품 디스플레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본과정 6회 18시간과 심화과정 8회 24시간의 교육을 수

료한 자들이다.

기본과정은 고객이 원하는 상인의 모습, 상인이 변화해야 시장이 산다, 고객관리 기법, 발로 뛰는 서비스 정신, 알기 쉬운 세무상식 등이며, 심화과정은 효율적인 점포관리, 점포 차별화 전략, 친절화법 실습, 뛰는 내 점포의 마케팅, 재래시장 유통업종, 점포지도 등 실무적인 교육과 점포지도도를 통한 점포 경쟁력 강화에 두고 실시했다.

명예학장인 김문수 의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4회 42시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35명 졸업생 모두가 열심히 다녀 졸업장을 받은 데 축하드리며, 대학에서 배운대로 졸업생 여러 분들이 경영마인드 변화와 서비스 향상으로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원봉사자 自祝의場

의정부시 제4회 자원봉사대축제 1천여명 참석

의정부시는 12월 22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김문수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개인자원봉사자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동안 추진해 온 봉사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단체와 청소년, 개인 봉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축의 장을 마련해 시의 자원봉사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1부 식전행사로 화합의 무대로 화령지무, 댄스스포츠, 설장구, 뱃노래 유희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2부는 공로패 및 인증서, 배지 교부, 시상, 대화사, 축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행사가 열렸다.

올해 봉사시간 최고 기록자인 하안순길 김영복씨가 1182시간으로 대상을 차지했으며, 금상은 1005시간을 한 우리초스포츠 김학수씨가, 은상은 967시간을 한 의정부시자율방법대연합회 최창석씨가 차지해 공로패를 받았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최저임금감액률 30% 적용 시간급 3천480원으로 인상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2007년도 최저임금액 변경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감액률(30%)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종전 3천100원에서 3천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감액률 30%를 적용하여 사업주는 시간급 2천436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의정부시 제4회 자원봉사대축제가 12월22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한 단체 대상은 의정부시해병 전우회에서 차지했으며, 금상은 의정부시자율방법연합회, 은상은 한전KD(주)한마음봉사대, 동상은 뽕,사.모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봉사단에서 차지해 공로패를 받았다.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자 1천182명 가운데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 인증서와 금도금 배지를 받은 자원봉사자는 54명이며, 900시간 이상 보라배지는 27명, 700시간 이상 파랑배지는 73명, 500시간 이상 초록배지는 13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수 자원봉사자로 표창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소년상담·위기청소년 지원정책 마련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발족

의정부시는 12월22일 오전11시 김문수 의정부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교육청, 경찰서, 법무부 등 행정기관 관계자와 시의원, 의료기관, 청소년단체, 복지시설 대표자 등 각계각층의 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시간내 청소년 유관 기관과의 연계구축

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치료, 자활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상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자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발족으로 올해 7월부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확대개편되어 운영중인 청소년지원센터의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